

둘의 하나

NOTRDAME ANNUAL MAGAZINE



조업개별 - 나와공 이어기, 봄날

재단법인 노를담수녀회
inle
노를담 복지관

CONTENTS

여는글

새해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06
기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요	07

노틀담 포커스 人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노틀인	
디지털 일상 속 외침, 가까운 이야기	10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첫 편지	14
너의 꿈꾸는 보물섬을 응원해	16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며	18
어렵지 않은 디지털 일상	20
보조기기로 편리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21
비오는 날의 행복했던 우리들의 선택	22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24

모두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환경실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위한 노틀담의 실천	27
이번 생은 지구지킴이, 도전!	28
텀블러와 환경보호	29

둘이하나 2023. vol.92

발 행 월 : 2024년 2월
발 행 인 : 이선애
발 행 처 : 노틀담복지관
편 집 인 : 유병용
주 소 : 21042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35번길 12-37
전 화 : 032-542-3711~5
팩 스 : 032-541-7377
홈페이지 : www.ntd.or.kr

노틀담 솜씨

빛을수록 멋진 인생	32
2023년 '알찬하루' 디카시 작품	34

노틀담 희망나눔

노봉이를 소개합니다!	38
2023년 후원금·품 사용 내역	40
행복후원 사랑실천	43

노틀담복지관 제24회 지역문화행사 계양산 숲속이야기





여는 글

새해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사람중심의 서비스 실천'을 핵심가치로 살아온 노틀담복지관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도 노틀담복지관은 '사람중심'이라는 가치를 변함없이 살아가리라 다짐하며
박노해 시인의 '새해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라는 시로 노틀담복지관의 모든 종사자들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새해에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새해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 밥을 기르고 지어낸
사람들을 생각하고

집을 짓는 사람은
그 집에 살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옷을 입고 차를 타고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것을 생산하고 땀 흘린 사람에게 감사하며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두고두고 쓸 사람이라는 마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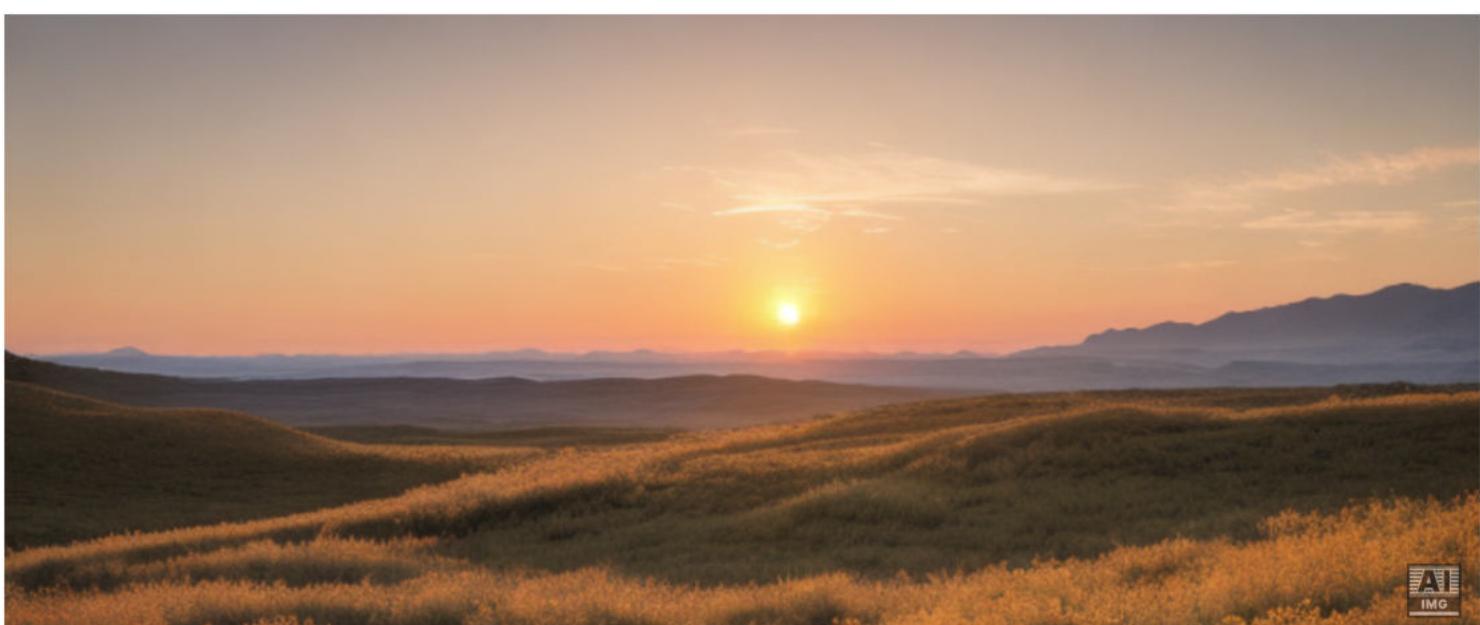
우리 사회와 역사와 인류를 생각하되
사람을 중심에 두는 운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잘해보려는 사람은
그 일을 통해 사람도 좋아지겠다는 마음으로

새해에는 일도 밥도 꿈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노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람을 중심에 두는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노틀담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과 후원자분들과 봉사자분들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기쁘고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요

2023년 인간존중과 사랑실천으로 가치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주신 이용자, 직원, 지역사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노틀담의 핵심목표인 사람과 지역사회 중심의 실천, 디지털 활용, 생태복지,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해 새로운 시도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 중심 계획에 의해 지역사회에서 기대하는 역할들을 만들고 의미 있는 목표들을 향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발달장애인 청년 댄스동아리 '엔탑'은 계양구민의 날 행사에 지역예술인으로 초대되어 큰 무대에서 떨지 않고 공연을 잘 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노틀담대학 친구들은 스마트폰영화제에 출품할 영화를 제작하는데 5개월간 고생하며 준비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자신을 표현하는 예술적 성취들을 통해 자신감 있는 밝은 얼굴로 변화했습니다.

디카시 활동을 하는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알찬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표현하고, 여행지를 결정하는 모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알차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관계들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연말 제7회 발달장애인 자기주장대회에서 자신의 목표와 성취들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자랑하고, 보여주며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삶을 더욱 키워가도록 서로 응원합니다.

중장년기 남성 이용자들과 지엠사랑나눔봉사팀이 함께한 '빛을수록 멋진 인행' 도예활동 작품 전시회가 한국지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도예를 통해 재능과 열정을 펼쳐보고, 형님 아우의 우정도 빛으며 무료한 일상을 기쁨으로 전환했습니다.

2024년 6월부터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중앙정부 사업이 시작됩니다. 저희 기관에서 2015년 처음 시작한 긍정행동지원사업이 전국단위 국가사업으로 확장되는 되는 것입니다. 그간의 수행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 효과적인 긍정적 행동지원 방법으로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원이 더한층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기관의 실천 경험이 지역에 많은 기관과 나누어져 사업이 효과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로 프로그램실 조정과 이동이 진행되었고, 위기상황 대처에 필요한 긍정적인 안전한 실천 교육과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용자와 가족, 그리고 사랑실천으로 협력해주시는 좋은세상만들기, 행복하고 아름다운 동행, 인천교통공사, 두루미봉사단, 지엠사랑나눔봉사팀, 시민옹호인, 후원자, 지역사회에 여러 협력자 여러분! 새해에도 노틀담을 통해서 더욱 행복하고 기쁨의 시간이 충만해지길 기원하고, 저희도 여러분들과 더 좋은 변화들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노틀담 포커스 人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노틀인

디지털 일상 속 외침, 가까운 이야기



디지털 New 도전 이야기

Q. 올해 새로운 도전을 하셨다고요?

A. 스마트폰으로 영화촬영부터 편집까지 모두 진행하는『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로 영화제작에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Q. 촬영과정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심O용: 일단 우리가 아예 처음해봤기 때문에 강사님께서 기초적인 교육들을 해주셨고, 그 다음은 대본을 적고 소품을 준비하면서 본격적으로 촬영했어요. 영화의 전체적인 스토리와 순서도 저희가 직접 다 준비했어요.

박O윤: 각본도 짜고 카메라, 녹음, 연기, 대본도 스스로 했어요.

장O훈: 아예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Q. 각자 역할들이 있다던데요?

A. 이O훈: 저는 촬영감독이어서 배우들을 예쁘게 촬영했어요.

심O용: 저도 조연출이었는데 다양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촬영이나 조명과 녹음감독, 그리고 우리 감독에게 내용 변경했으면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기도 했어요. 소품 준비도 저희가 했어요.

조O지: 저는 감독과 배우, 작가로 활동했고요. 작년에 디지털 편집 교육에서 배웠던 기술들을 사용했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Q. 영화제작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A. 이O우: 장애인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기뻤던 것 같아요.

장O훈: 저는 촬영 감독을 했는데, 슬레이트를 열심히 치면서 배우들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Q. 영화에서 주인공(유정역할)과 대립하는 장면들이 인상 깊어요. 영채씨에게 연기란 무엇인가요?

A. 일단 감정을 말씀드릴게요. 감정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신경을 썼어요. 촬영감독님이 컷을 해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촬영도 몇 번 했어요. 저한테는 표정연기보다 감정연기가 쉬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감정을 잡아야 표정연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Q. 촬영 에피소드가 있나요?

A. 박O윤: 처음에는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연령대를 높였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런 차별이나 시선들을 겪는데 이 점을 알려주고 싶었는데 어린 아이들 섭외가 쉽지 않아서 고등학교로 바꿨어요. 하지만 중, 고등학교 시절이 학교폭력이 제일 심한 시기여서 변경했던 것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심O용: 배우, 감독, 디지털 연출 모두가 처음이었지만 다들 열정적이었어요. 배우와 감독이 만족하지 못해서 재촬영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신O정: 제가 원래 울음이 많은 편인데 울어야하는 장면에서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장면인데, 정말 답답 했죠.(웃음) 그래서 담당선생님한테 울려달라고 부탁드렸는데 10초 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신기하면서 웃겼어요. 해림쌤! 사랑해요.

Q. 감독님들은 '야근'을 하셨다고요?



A. 조O지: 대본 최종본이 나왔는데 조금 더 완벽하고 싶어서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가기엔 어렵고, 이 영화의 핵심 부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재촬영하기도 했어요. 배우들의 감정 전달도 정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긴 작업이었어요. 맨날 노트북을 들고 다니고 담당선생님이랑 같이 퇴근 한 적도 많았네요.(웃음)

Q. 일상에서의 디지털 변화가 있나요?

A. 조O지: 작년에 노틀담대학에서 디지털 수업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올해는 새롭고 발전된 영화제작을 하니까 더 성장한 것 같아요.

신O정: 비장애인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꿈이었던 직업을 경험해볼 수 있었어요. 디지털이라고 하면 저희는 어렵다고만 생각하는데 내가 재미있어했던 주제(영화제작)를 함께 하니까 "어렵지 않구나.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며 자신감이 향상되었어요.

영화 속 가까운 이야기

Q. 이번 영화제를 [학교폭력] 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A. 심O용: 저희 영화의 목적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장애인과 학교폭력, 이 두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와요. 비록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통해 사회의 심각성을 직접 관람하면서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닌 확실한 메시지를 전파시키고 싶었어요.

조O지: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겪었던 실제 내용들이에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부정적인 시선, 차별들을 겪은 이야기에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했고, 관심이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학교도 선생님들도 저희 보다는 비장애인학생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괴롭힘이 있을 때에는 하루하루가 흘러갈 뿐이었어요.

Q. 영화 결말이 수정되었다고요?

A. 조O지: 처음에는 복수극이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여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니 최고의 복수는 [용서]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수정했어요. 우리도 그들과 똑같아지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는 더 성숙하니까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A. 박O채: 이 이야기를 통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잘못된 건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라고, 우리에게 했던 나쁜 일들이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살라고, 떳떳하게 어깨 펴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힘들다는 걸 알아요. 저도 이해해요. 이 이야기들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걸, 하지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깜깜한 나무그늘에만 있었으니 더 이상 그곳에 외롭게 있지 말고 따뜻한 해가 있는 곳으로 나올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가까운 이야기>
보라가기



가장 가까이서 봤던 담당자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노틀담대학 담당자 박해림입니다. 올해 저희가 아주 뜻깊은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영화제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우리 이용자들이 직접 대본과 각색, 연출, 촬영, 편집을 했는데요. 영화 이름은 [가까운 이야기], 주제는 [학교폭력] 우리들이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앞서 너무 훌륭한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저는 영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합니다. 첫 영화촬영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 오늘 촬영 했다는 영상을 보는데 가슴이 조금 먹먹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과연, 이 주제로 사용하는 것이 맞을까, 다시 한번 우리 참여자분들의 상처를 밖으로 꺼내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다음날, 정말 괜찮은지 되물었죠. 돌아오는 대답은 “선생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에요. 아직도 학교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에요. 저희 이야기로 사람들이 조금은 다르게, 올바르게 생각 해주었으면 해요. 선생님 저희요. 이 이야기하고 싶어요.” 굳은 참여자들의 말에 이 이야기는 상처를 꺼내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처를 공유하고 가까운 이야기 속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인터뷰 마지막에 대본을 작성한 작가(조O지씨) 참여자 분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알아주세요.” 이 한마디에 우리 영화의 모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첫 도전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비록 유쾌하지도 않는 이야기라도 조금만 관심을 보인다면 어디서든 일어나고 있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제 6회 대한민국 패럴스마트폰 영화제 시상식 그곳에서

4개월 동안의 여정에서 드디어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시상식에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화장을, 자주 꺼내 입지 않았던 정장과 드레스를, 수수했던 참여자 분들이 칸 영화제 초청 배우들 못지않게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였습니다.

노틀담대학팀은 수상을 했나고요? 그럼요! 48개 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팀워크를 보여준 한 팀에게만 시상되는 [베스트 팀워크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동안 웃고 울었던 모든 시간들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럴스마트폰 사무국에서 우수한 팀 3팀으로 선정되어 추후에 기자단과 인터뷰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또 값지게 보내는 우리 노틀담대학, 남은 올해도 또 다가올 2024년에도 열심히 달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쓰는 첫 편지



만성 통증과 거동이 불편해 집에만 계시는 박은미님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사시길 바라며 박은미님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박은미님이 가장 행복하셨던 때가 언제예요?"

"저는 한글을 배울 때가 좋았어요."

"글을 쓰고 싶어요."

박은미님은 어린 시절 장애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셨고 한글을 제때 배우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글은 알아야 한다고 부모님이 보내주신 동네에 있는 작은 공부방에서 처음 한글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마저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공부방을 그만 두게 되었고, 그렇게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지금껏 살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글자는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받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글을 쓰는데는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글을 못 써도 큰 불편함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글을 몰라서 마음 한켠에 계속 남아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며 들려주셨습니다.

17년전 하나뿐인 아들이 군대에 갔을 때, 아들에게서 잘 지내고 있다는 편지가 왔는데 글을 몰라 답장을 보내주지 못했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서 한글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눈 날, 박은미님께서 한글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한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봉사자를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박은미님은 벌써 한글을 배우면 하고 싶은 것들을 상상하시며 설레여 하셨습니다. 봉사자를 처음 만난 날. 서점에 가서 한글 교재를 함께 구입했고, 서점을 나서며 벅차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기뻐서 점프하듯 펄쩍펄쩍 뛰는 어린아이 같았던 박은님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이 생생합니다.

낯선 사람들만 만나면 긴장하고 자신감이 없어 주눅들었던 마음이 한글을 배우면서 달라졌습니다. 내면에 자신감이 생기면서 참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시작하기 늦은 때는 없다는 말처럼 공부에도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박은미님 곁에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박은미님이 그토록 원했던 소망, 한글을 배우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하나 뿐인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To 사랑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우리아들이 학교 다닐때도

군대가고 군제대하고 집에 왔을때

힘들때도 도움을 주지못해서

왕이 왕이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아들 몸 건강하고

행복하게 잡살기를 바란다.

아들아 안마기의자 사줘서 고마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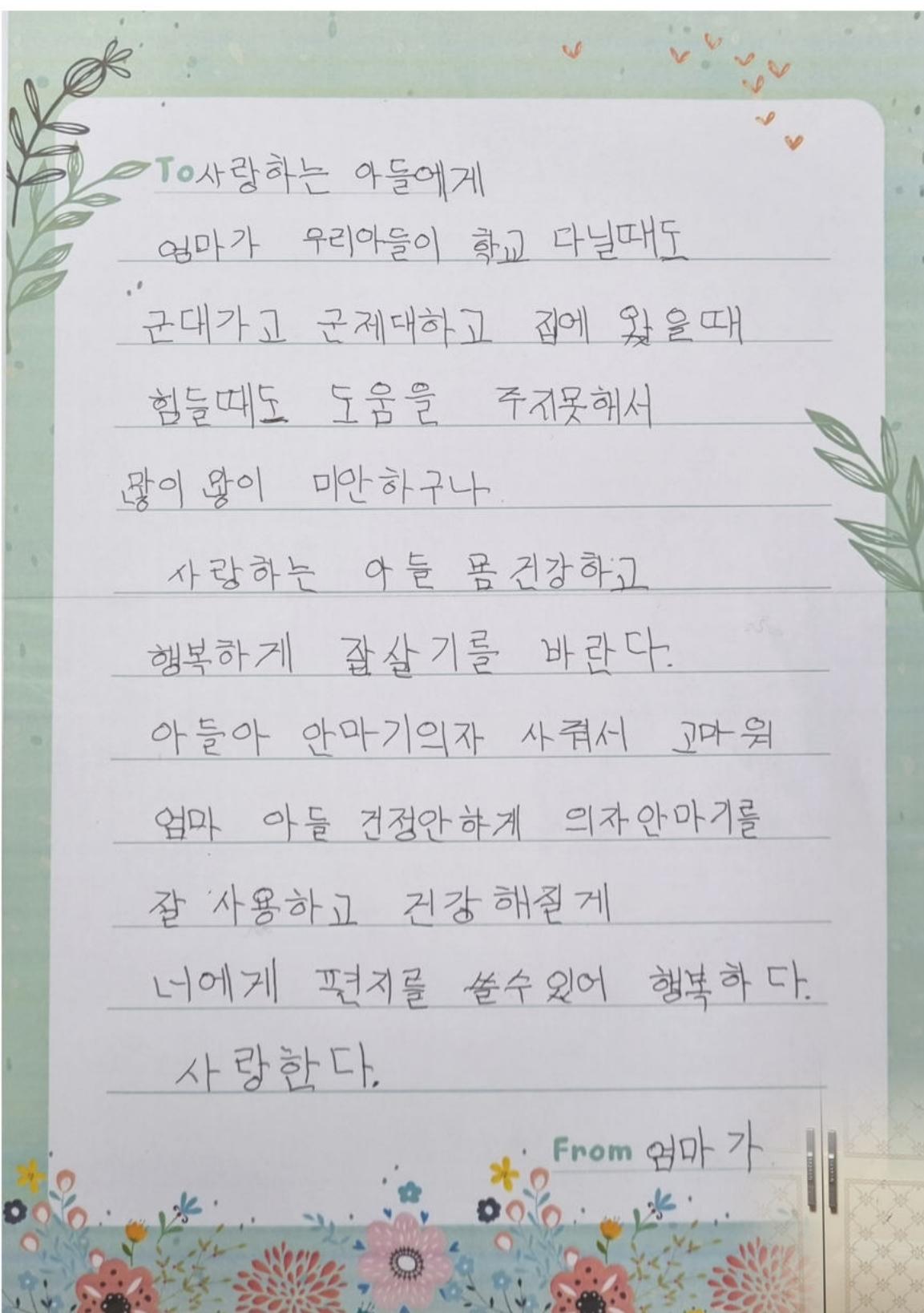
엄마 아들 건정안하게 의자안마기를

잘 사용하고 건강해질게

너에게 편지를 쓸수 있어 행복하다.

사랑한다.

From 엄마가



너의 꿈꾸는 보물섬을 응원해!

큰 키에 길쭉한 팔다리와 뚫망똘망한 눈. 좋아하는 것은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동물과 색깔을 사랑하는 귀여운 유치원생이 있습니다. 먼 훗날 멋진 어른으로 성장할 아이를 위해 어머니와 함께 응원의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민서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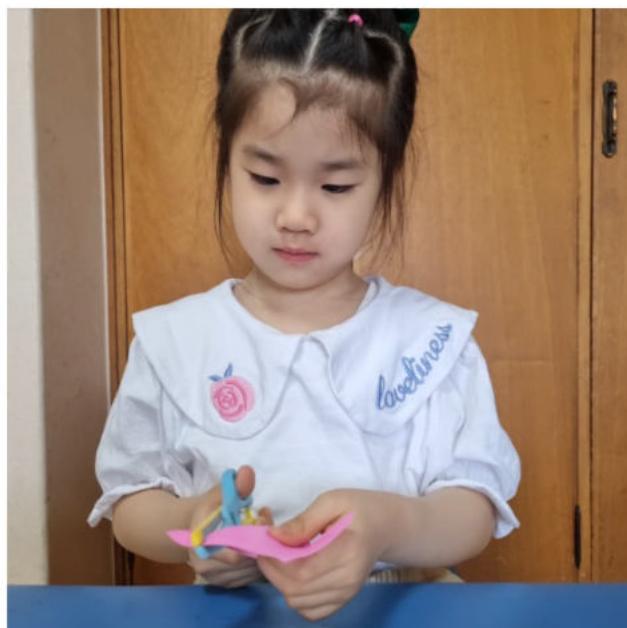
쌍둥이 중 첫째로 가족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민서는, 작년 가을, 자폐스펙트럼을 진단받았습니다. 태어나서도 제법 까칠했고, 사물을 보는 시선이 남들과는 달랐습니다. 처음 기관에 왔을 때도 호명 시 반응하는 횟수가 적었고, 의사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부모님은 치료를 동행하여 돌봐주시고, 부모님은 특별한 민서를 위해 공부하시면서, 치료사가 피드백해 드린 부분을 가정에서 수행해주십니다. 이러한 노력을 아는 걸까요? 최근 낱말들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고, 처음 가본 태권도 학원에서 울지 않고 수업도 하고 왔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힘든 부분이나 원하는 것이 있으면 부탁도 합니다. 활동 과정 안에서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열심히 노력해주는 모습을 보면 기특하면서도 대견합니다.

올해 5살이 되는 민서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과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 다양한 일상생활 도구들을 사용하는 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해 저 또한 치료실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민서와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생각과 기질을 가지고 있듯, 우리 아이들도 그렇다는 것을 임상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살아갈 이곳은 서로가 다름을 이해하고, 함께 배려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민서가 글을 읽을 날이 오길 바라며, 어머니가 민서에게 응원의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집 미소 천사 민서에게

민서야~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냈니?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냈다고? 말하지 않아도 너의 얼굴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것 같구나~

며칠 전 엄마가 책을 봤는데, 그 책 속에 한 아이가 상자를 쓰고 태어났대. 상자를 썼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상자를 두들겨팼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더라고, 상자가 꿈꾸는 보물섬이라는 것을 말이야.

어느 날 한 아이가 머리에 쓴 상자가 균형을 잡고 서며 "그 상자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줘!" 하더라고.

쫑알쫑알 아이들이 귀가 아프도록 떠드는 모습, 친구들끼리 서로 공주님 하겠다고 티격태격 말다툼하는 남들의 보통의 일상이 부럽기도 했는데 말이야. 너의 그 특별한 꿈꾸는 보물섬 상자가 더욱 신나 보이는 거 있지~

엄마 아빠, 민하도 민서 상자에 들어가 같이 꿈을 꾸며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줘!

보통과 특별 그 사이 속에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너를,

엄마와 아빠 그리고 민서가 항상 응원하고 사랑해 ❤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하며, 모두의 건강을 위한 삶의 도구

안녕하세요? 저는 뇌병변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제가 처음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알게 된 건 2014년도였습니다. 아이가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했을 때 담당교수님께서 우리 아이는 서는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하면서 자세유지기구센터를 소개해주셔서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절개관을 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센터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평가해 주셔서 석션도 편하게 하고, 기관절개관도 눌리지 않는 자세로 서 있을 수 있게 기구를 맞춤 제작해 주셔서 편하게 집에서 세워줄 수 있었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로 제작한 기구는 장애아동 맞춤형 유모차였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장애아용 유모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마른 체형의 우리 아이가 사용하기에는 신체가 옆으로 많이 기울고, 자세도 불편해 보였습니다. 앓기에 적합한 자세를 위해 평가를 하고, 체형에 맞게 쿠션이 적용된 유모차에서는 아이가 앞으로 쓰러지지 않고 예쁜 자세로 앓을 수 있게 되어 편안해 하였습니다.



센터를 이용해 보니 일상생활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기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시트, 눕는 기구, 체형을 유지하면서 앓을 수 있는 기구 등을 성장에 맞게 계속 맞춤 제작했습니다.

맞춤형 카시트와 유모차가 좋고 편안하니 아이와 함께 여행도 가능하져서 많은 곳으로 여행을 다녔습니다.

얼마 전에는 배에 차를 싣고, 제주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를 타자니 유모차가 기내에 반입이 안 되고, 특히나 카시트를 화물로 보내면 망가질 거고, 그렇다고 들고 갈 수도 없고 해서 배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온 가족이 함께 정말 행복한 여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세유지기구센터 선생님들께 가장 감사하는 점은 바로 침대형태의 기구입니다. 보통 아픈 아이 중 와상 환아를 키우는 분들은 아이 침대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료용 침대를 구매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의료용 침대는 사이즈가 커서 거실이나 방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모이더라고 소외될 수 있는데, 자세유지기구센터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똑딱똑딱 침대형태의 멋진 기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방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로 말이죠.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가족모임이나 손님이 방문하실 때 항상 아이가 제 옆에서 함께할 수 있고, 제가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 할 때도 옆에서 아이와 함께할 수 있어서 저도 마음이 놓이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있으니 불안해하지 않아요.

최근에 침대형 기구를 5년 동안 잘 사용하다가 불편사항이 생겨서 상담을 했습니다.

아이가 와상생활을 하다 보니 저의 허리와 어깨, 손목 등 안 아픈 곳이 없더라고요. '의료용 침대처럼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말씀 드렸더니 이번에도 역시 시원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아이의 키가 컸으니 눕는 공간을 약간 늘리고 모션데스크를 이용해 높낮이가 조절되는 침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결 허리가 안 아프고, 아이와 함께 낮에는 거실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곳에서, 밤에는 방에 들어가 아빠엄마와 함께 편안하게 꿈나라에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형을 유지하면서 앉을 수 있는 맞춤형 의자도 만들었습니다. 순회학습 수업시간에 선생님도 아이도 너무나 편안하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센터를 만들어 지원해주는 인천광역시에도 감사드려요. 다른 시도에는 이런 곳이 없어 사실은 장애인 보호자들에 게 엄청 부러움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친절하고 자상하고 꼼꼼하게 저희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자세유지기구를 맞 춤 제작해주시는 센터에 모든 선생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들의 노력과 수고 덕에 저희 아이의 삶이 너무나도 윤택해 졌고, 온 가족과 항상 함께 할 수 있어서 제영이도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세유지기구센터에 와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하며, 불편한 몸을 가졌지만 가족 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도 하며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길 바래봅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더 많은 연구 부탁드려요. 저희 가족에게 크고 작은 행복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어렵지 않은 디지털 일상



일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는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카페, 식당, 영화관 등 상점에 가면 '키오스크'라는 무인 단말기(직원 없이 직접 터치해 주문하고 결제해야 하는 방식)가 많아졌고, 스마트폰으로는 전화, 카카오톡, 인터넷, 영상시청, 결제, 예약 등 쉽고 편리하게 시간과 거리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처럼 일상 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매주 목요일 분기별(1~4기)로 10회기 씩 키오스크, 스마트폰 활용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진행했으며, 맞춤형 수업을 위해 참여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10회기 계획을 유동적으로 바꿔 진행했습니다. 1~4기 참여자 대부분 매일 사용하고 손에 익숙한 스마트폰이지만 처음 살 때와 똑같은 설정으로 지내고 있거나 보호자, 조력자, 지역주민분들이 대신 맞춤 설정을 해주고 있었고, 알면 편한 기능들도 몰라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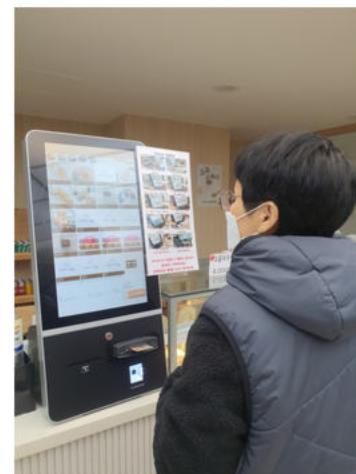
디지털 배움터 10회기 동안은 직접 핸드폰의 기능을 하나씩 알아보고 눌러보고 실행해보면서 회기가 끝나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적어도 한 가지씩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습니다. 전원, 소리 음량, 와이파이, 화면 밝기 조절 등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본 기능(설정)에 대해 알아본 후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서 사진 촬영 및 편집, 애플리케이션(네이버, 유튜브, 길 찾기 등) 사용 방법, 저장공간 관리 등 단계별로 스마트폰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키오스크'라는 무인 단말기를 통해서 카페, 식당, 영화관에서 스스로 주문을 해볼 수 있도록 연습과 실습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선 단어들로 인해 스마트폰과 키오스크를 터치할 때 머뭇거리고 담당자를 쳐다보는 횟수가 많았으나 점점 회기를 거듭할수록 자신감이 생기고 담당자가 없이도 키오스크로 직접 주문하거나 사진 편집을 하는 등 디지털 기기에 한 발짝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0회기를 마치고 기억에 남는 것과 소감을 여쭤봤을 땐 "모르는 것을 배워서 좋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니 아쉬워요." "재미있었어요." "사진 편집 더 배우고 싶어요."라고 의견을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어려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대단하지 않나요? 내년에도 디지털 기기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디지털 배움터'는 계속 진행합니다.

앞으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 디지털 기기와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께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보조기기'로 편리한 일상을 지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주말 늦잠으로 피로를 풀 수 있는 우리의 집은 힐링의 장소이자 가장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햇살을 맞으며 일어나 커튼을 치거나, 전등의 불을 켜고, 끄는 일상적인 일을 신체 수행이 어려운 당사자에게 '보조기기'로 보다 편리한 집안 환경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조기를 매개하여 '보통의 삶'을 만들어가는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는 2023년 경인권역재활병원과 함께 이번 '스위트 홈'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거주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환경제어장치' 유형의 보조기기를 안내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했던 21대의 보조기기가 19명의 당사자 가정에 설치되었습니다.



▲ 핸드폰 앱으로 커튼제어가 가능한 '전동커튼레일'



◀ 센서인식으로 물 내림
이 실행되는
'변기자동 물내림장치'

"비장애인들도 나이가 들면 건강에 적신호가 오지만 장애인들은 그 속도가 많이 빨라 지다보니 스마트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당사자-

"우리 아이가 용변 후 혼자 물내리는것을 하지 못해 매번 저희가 해주었으나 가끔 제때 하지 못해 냄새도 났었고 변기가 깨끗지 못해 청소를 자주 해야 했었는데, 설치해주신 '변기자동 물내림 장치'덕분에 이제는 용변 후 자동 물내림이 되서, 변기도 깨끗하고 냄새도 없어져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보호자-

"선생님! 이런(전동커튼) 보조기기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편리해요! 혼자서 할 수 있다는 변화에 활력이 생겼어요!"

-당사자-

우리의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새로운 보조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지원처 및 보조기기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찾는 것은 온전히 주 지원자의 역할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담을 덜어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에서는 2024년도에도 당신의 삶에 활력 될 수 있는 보조기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노틀담복지관 인천광역시보조기기센터
이용문의 032-540-8946~9
홈페이지 www.icatc.or.kr

홈페이지



카카오톡 플러스채널





비오는 날의 행복했던 우리들의 선택

유튜브로 영상을 보던 중 놀이공원 광고가 나오자 이용자 중 한 분이 박수를 치며 "우와 가고 싶다", "바이킹", "재밌겠다", "푸-바오 보고 싶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다 싶어 친구들과 모여 장소선정 회의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놀이공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 나들이로 어디 가고 싶어요?"

"에버랜드", "놀이공원", "가고싶어요"



캠프 당일 아침, '장마가 시작됐대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복지관에 온 친구들은 놀러 간다는 생각에 들떠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에버랜드 가고싶어요?"라고 물어보니 모두 큰 소리로 "네", "갈 거예요."라고 대답했어요. 비도 우리들의 열정을 식힐 수 없었어요. 에버랜드에 도착하고 비는 거세게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왠줄 아세요? **눈치게임** 성공했거든요. 아무도 없었어요."



#성인주간보호센터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 #비와 당신

비가 오는 날이라서 에버랜드 이용객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놀이기구를 기다리지 않고 탑승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우비를 입고 서둘러 이동했어요. “준영씨 이거 탈래요?” 고개를 끄덕이고 빠른 속도로 회전목마를 타러가는 듯 했어요.



“선생님 동물 보러가요!”

“우와 사자다”

“엄청 크다”

“무서워요”

“신기해요”

“준영씨, 말 거꾸로 타는거 아니에요.”

빨리 타고 싶은 나머지 거꾸로 탄거 있죠?ㅎㅎ



“떡볶이 먹고 싶어요.”, “햄버거”, “치킨” 등 저녁식사 역시 친구들이 다양한 메뉴 중 먹고 싶은 음식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했어요. 맛있게 먹는 친구들의 모습만 봐도 너무 배가 부르더라고요.

에버랜드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돌아온 뒤 깨끗하게 씻고, 소감 나누기도 하고, 보드게임도 하고, 팩도 붙이고, 마지막까지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중 소감 나누기를 하며 친구들은, “오늘 하루 어땠어요?”라는 질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비와서 재밌었어요”, “동물 좋았어요”, “햄버거”, “함께 놀아서”라는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어요.

비 오는 날에 에버랜드를 가는 것에 걱정이 많았으나 친구들은 비가 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함께 해서 즐겁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재밌고, 다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던 건 이용자들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친구들 얼굴에는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고, 저희는 친구들의 웃는 얼굴을 보며 행복했어요.’



비오는 날의 놀이공원.. 하지만 우리들이 선택했기에 행복한 일정이었습니다.

성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들과 함께 선택을 통한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상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만의 방식으로 현재를 살아갑니다.

웃고 싶을 때는 까르르 웃고, 울고 싶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 내어 울기도 하고, 불편함이 있을 때는 얼굴을 찡그리며 칭얼 거리기도 합니다. 컨디션이 저조하여 무기력할 때는 멍~하니 초점 없는 시선으로 가만히 쉬기도 하고, 식탐은 없지만 먹을 때는 먹는 순간에만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롯이 지금의 느낌과 감정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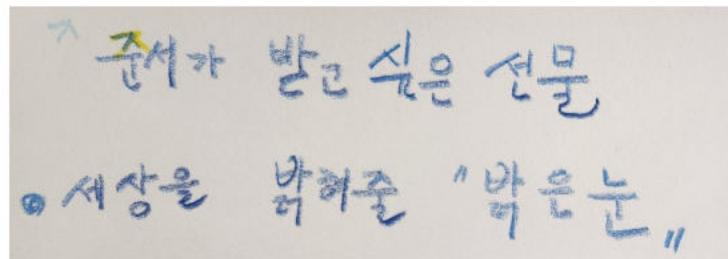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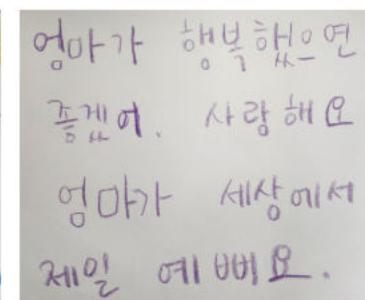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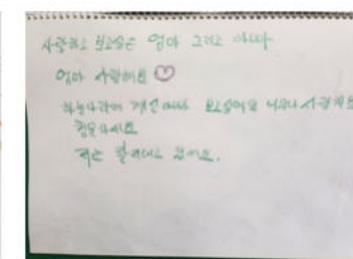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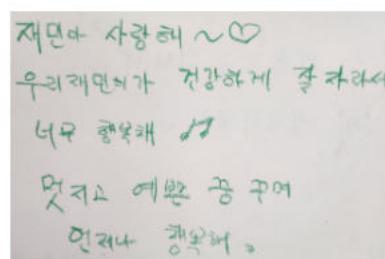
청소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는 모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스스로 수저를 사용할 수 없어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밥을 먹일 때나, 대·소변을 볼 때 등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들과 씨름을 하며 돌보아 주십니다. 언어표현을 못 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어쩌다 드물게 응답이 같은 말소리를 한 번 내는 것, 잘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손을 한 번 들어 올려 손뼉을 치는 듯한 동작을 하는 것, 이러한 우리들의 아주 작은 변화와 행동에도 선생님들은 활짝 웃음 지으며 행복해하십니다. 우리는 선생님들의 언어와 마음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선생님들은 언제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에 오롯이 집중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합니다.

노틀담에서는 우리들의 일상이 보통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 흐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합니다.



▲ 감각통합교육활동 시간에 선생님들이 표현해주신 우리들 마음 쿠기 한조각



노틀담 포커스 人

모두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환경실천

지속가능한 사회복지를 위한 노틀담의 실천

올해 2월부터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ESG 5분 교육을 총 10회 진행했습니다.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뜻하는 ESG가 사회복지기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처음에는 다들 낯설고, 우리와는 상관없다고 느꼈죠. 사실 교육을 준비하는 저조차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어렵고 고민되었지만, 교육을 마친 지금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구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조직 구성원으로서 누구나 책임이 있고 관련이 있다는 걸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핵심 단어는 **지속가능성**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으로 [REDACTED] 실천 방법은?"

- ① E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 ② S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개인의 실천으로 연결 짓는
- ③ G 기관의 미션비전과 실행체계를 갖추고, 리더들의 책임성과 리더십을 키우며, 직원들과 내재화하는

위 질문에 3가지를 넣고 답해보면 사회복지기관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명확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중에서 올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노틀담복지관에서 실천했던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ESG 5분 교육

-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2가지 이유
- 사회복지기관에서 지구를 살리는 생태환경 실천 방법
- 노틀담[E렇게]캠페인



생태복지 실천

- 홍보물은 친환경 재사용 용지로 제작, 비닐 사용 없는 관보 발송
- 물품(반찬)배달에 다회용기, 다회용가방, 타포린가방 사용
- 재활치료 중 물티슈 대신 전용 걸레와 수건을 종류별로 사용
- 가정통신문은 모바일로, 회의자료는 종이 없이 태블릿 활용
- 이용자, 자원봉사자, 직원 대상 생태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
- 잔반통 없는 식당 운영과 철저한 쓰레기 분리배출

이외에도 종이컵 없는 복지관, 새로운 물품 구매는 줄이고 팀별 사용하지 않는 물품 교류, 직원들과 자연스러운 환경 대화 등 당연하게 사업안에 녹아든 생태환경 실천들이 직원들에게 내재화되어 환경감수성이 높아지고, 개인의 삶에서도 고민하고 실천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고, 숙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한 지구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현재진행형으로 노틀담복지관은 이용자와 직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지역사회 모두 함께 생태환경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실천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생은 지구지킴이, 도전!

노틀담은 지속가능한 생태복지 실천이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지구 생명을 살리는 생태적 삶을 일상에서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양산 숲속이야기 진행에 앞서 우리가 작은 도시, 우리나라를 넘어 지구촌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환경감수성을 키우고 좀 더 배려하는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환으로 지구지킴이 캠페인을 기획하여 행사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노틀담과 함께하는 지구지킴이 캠페인 – 자원순환 스템프 챌린지

1. 플라스틱 방앗간 : 플라스틱 병뚜껑 10개 모아오기
2. 너도 용기내봐 : 텀블러 혹은 음식 담을 용기를 준비하기
3. 에코스테이션 : 대중교통 이용 후 인증사진 찍어오기

▶
너도 용기내봐
참여인증



한달 간 캠페인 홍보영상을 통해 생활속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 재사용 하기 등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관심과 실천을 부탁하였습니다.

캠페인에 직접 동참하는 분들께는 리워드로 실천 횟수에 따라 에코포인트를 지급하고 행사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양산 숲속이야기가 열린 10월 14일. 얼마나 많은 분들의 참여가 있었을까요?

플라스틱 방앗간에 병뚜껑을 넣어주시며 내년에는 더 열심히 모아서 참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내어 보여주시고, 그릇을 챙겨와 음식을 담아가는 분들의 용기를 보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에코스테이션 인증사진을 자랑하며 해맑게 웃는 어린이부터 수줍게 보여주신 어르신까지 우리 모두가 지구지킴이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공동의 과제에 모두 공감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행한 유의미한 성과였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주신 플라스틱 병 뚜껑은 행사가 끝난 이후 부천에 있는 산재로상점에 전달하여 자원순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작은 실천이라도 일상에서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작은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은 지구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생은 지구지킴이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24회 계양산 숲속이야기 – 지구지킴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마음 꾹꾹담아 감사인사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텀블러와 환경보호

노틀담베이커리는 현재 제과제빵과 지역사회 내 카페를 6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었던 점은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카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카페를 운영하면서 환경보호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첫 시작은 텀블러를 가지고 오시는 고객에게 음료 할인!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는 환경 실천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습관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텀블러를 가지고 온 고객들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회용품을 선호했고 텀블러 할인은 많이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지속가능 한 생태복지 실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깊은 고민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 '다회용 텀블러 사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결과 장애인 근로자 왈 '다회용 텀블러 사용을 해서 설거지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일회용품을 적게 사용해서 좋아요. 쓰레기가 적어졌어요. 매장에서 커피 마실 때 습관처럼 일회용품에 담아 마셨는데, 지금은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빨리 녹지 않아 좋아요.'

노틀담베이커리를 이용하는 고객께서 '처음에는 다회용 텀블러라고 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어요. 마시고 다시 카페로 가져다줘야 하는 것이 불편하기도 해서 일회용품으로 해 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가 권유해서 사용해 보니 좋았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텀블러에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간 19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그루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노틀담베이커리와 함께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 함께해요!





노틀담 솜씨



| 노들담 솜씨
빛을수록 멋진인생

빛을수록 멋진인생

중장년기 남성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와 함께하는 중장년기 남성 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빛을수록 멋진인생"은 직접 도자기를 만들며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활기를 얻어가는 소중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동년배인 자원봉사자 분들과 함께 만들어 더 뜻깊은 의미를 담고, 평소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표현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빛은 멋진 인생 작품들을 감상해보세요.



◀ 흙가래 및 물레 성형
도자기 작품



점토판 성형 및 핸드페인팅
▶
도자기 작품

도예가 만들어 준 아름다운 인연

"빛을수록 멋진인생"은 '도예를 통한 중장년기 남성들의 관계맺기'를 목표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봉사자들이 활동을 돋는 보조자로 참여하는 것이 아닌 복지관 이용자들과 똑같이 도예수업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2회씩 도예 활동을 함께 하며, 노틀담복지관 이용자들과 지엠사랑나눔봉사팀 봉사자들은 장애와 비장애를 넘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관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빛은 도예작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당사자분들의 생각, GM 홍보관 내 노틀담베이커리 카페 앞에서 진해되었던 '빛은수로 멋진 인생' 展의 이야기를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의 뉴스친구 '메아리 Vol12'를 통해 만나보세요!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의 뉴스친구
'메아리' Vol12 보러가기!!

2023년 '알찬하루' 디카시 작품

* 디카시란? 디지털 카메라로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형상을 포착하여 찍은 영상과 함께 문자로 표현한 시

정신장애인 자조모임 "알찬하루"는 총 10회의 자율활동과 디카시 활동을 통해 선택과 참여를 통한 활동의 경험을 갖고, 사진과 여행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동료들과 나누면서 이해와 공감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모임입니다.

'함께'하는 활동 속에서 관계를 넓혀나가며, 지역사회로 한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여 당사자 작품을 소개합니다.



꼭대기



산 아래에서 보는 꼭대기는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산 중턱에서 보는 꼭대기는 아직도 높게 느껴진다.
산 정상에서 보는 풍경은 지금까지의 노력이
기쁨으로 느껴진다.
인생은 산 아래에서 시작하지만 올라가려 노력한다.
꼭대기에서 보는 삶을 바라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_허현진

동행



나는 지금 걷고 있다.
 언덕길이 나온다.
 언덕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앞서가는 이들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도 모르게 따라 그냥 따라가 본다.

_김형기

나무



나무는 언제부터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었을까요?
 나무는 두 팔을 크게 벌려서 나를 반겨 주었어요.
 나무는 희망찬 해맑은 공기를 인공호흡 해주었어요.
 나무는 지친 내 몸과 마음에 땀을 닦아 주었어요.
 나무는 언제든지 다시 오라고 손 흔들어 주었어요.

_임경희



| 노틀담 솜씨
2023년 '알찬하루' 디카시 작품

나를 나로 인정받고 서로 존중하는 하루

2023년 8월 처음 만난 **알찬하루**.

좋은 사람들과 지역에서 만나 아는 사이가 되고, 함께 행복을 느끼며, 즐거움으로 채워갔던 **알찬하루**.

9명의 모임원들이 나를 나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모임 속에서 디카시 작품을 작성하고 각자의 생각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임을 마무리하며 오늘의 알찬 하루가 어땠냐고 질문하면

"우리는 서로에게 나무같은 존재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알찬하루는 특별하다. 나를 나로 인정하고, 존중받는 기분이 든다."

"모임을 하고 나면 이후의 시간들이 행복하다."

라고 대답 해주십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각자의 색깔과 감정이 담긴 매력적인 디카시 작품을 함께 나누기 위해 총 38개의 작품이 모인 디카시 모음집 '**알찬하루**'를 E-book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노틀담복지관 홈페이지 발간자료실 또는 아래 QR코드를 통해 함께 활동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며, 함께 행복했던 알찬 순간들을 공유해보세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디 카 시 모 음 집

알찬 하루

나를 나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하루

알찬하루 자조모임 시집 |

노틀담복지관



디카시모음집 '알찬하루'
보러가기

노틀담 희망나눔

노 틀담복지관 봉 사자 이를 소개합니다!

두루미 사업 자원봉사자 이야기

노틀담복지관 자원봉사자분들은 어떻게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당사자분과 교류하며, 지속적으로 자원봉사를 해주고 계신지 궁금하여
노틀담복지관 두루미 사업 **임주현 자원봉사자**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Q. 현재 노틀담복지관에서 어떤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 A. 매달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두루미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시는 저소득 가정에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도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미리 약속을 잡고 산책이나 가까운 찾집에 방문하여 사람사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이다 보니 봉사활동이라기 보다는 소소한 일상의 재미라고 생각됩니다.

Q. 임주현 봉사자님이 두루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A. 작은 아이의 학교 담임 선생님이 두루미 봉사활동과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반 아이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해 소개해줬는데 작은 아이가 담임 선생님을 좋아해서 자기도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아침에 못 일어나고, 꾸준히 하지 못 할거라면 하지말라고 말하였는데, 자기는 할 수 있고 꼭 해보고 싶다고 해서 작은 아이에게 이끌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두루미 봉사를 하시면서 힘들었거나 보람을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신가요?

- A. 저는 두루미 봉사를 하면서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주말에 일하는 경우도 있고, 휴가나 가족행사들이 생기면 일정조정이 어려울 때가 있고, 작은아이도 학생이다보니 학원을 가거나 친구들하고 놀러갈 때도 시간 조정이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예전에 한 가정에 방문하면 당사자분께서 항상 우울하시고, 축 처져 계셨는데 주기적으로 같이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지내다보니 많이 밝아지셨고, 저희가 방문할 때마다 "고마워 이쁜 딸. 무거운거 가져오느라 고생했어"
라며 말도 너무 이쁘게 해주시고, 고마움을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아 전달해주니 큰 힘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하는 날에는 보일러도 더 따뜻하게 틀어놓으시거나 차도 미리 준비해주시는데 이러한 소소한 부분을 배려해 주시는게 약간 뭉클했습니다.

Q. 두루미 봉사를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A. 방문하는 가정 중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해 한글을 쓰거나 읽을 줄 모르고, 아이의 어머니도 지적장애가 있다보니 적질한 교육이 힘들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이가 핸드폰 음성 인식기능을 사용하여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유튜브도 보면서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Q. 임주현 자원봉사자님이 약 2년 정도 봉사활동을 해주고 계신데 꾸준히 자원봉사를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인가요?

A. 사랑 받는 사람이 사랑을 배풀 줄 안다고 저도 주변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주변에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어려울 것 같고 정기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부담이 있었지만 노틀담복지관이건 다른 복지관이건 일단 한번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봤으면 좋겠어요.
봉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루 잠깐 나들이가 나온다는 마음으로 봉사의 첫발을 한번 떼어보세요!

임주현 봉사자님의 두루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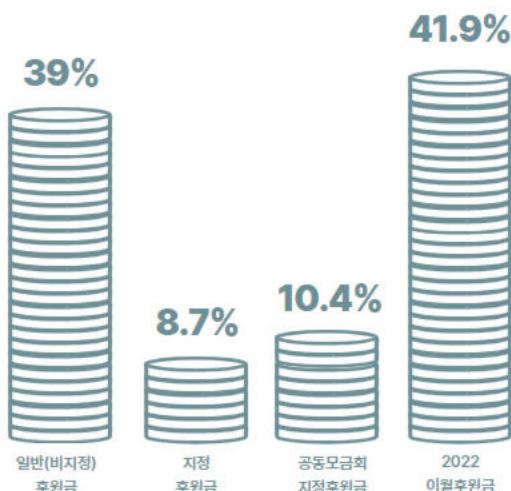
2023년 후원금·품 사용내역

한분 한분의 따뜻한 나눔,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복지관 후원금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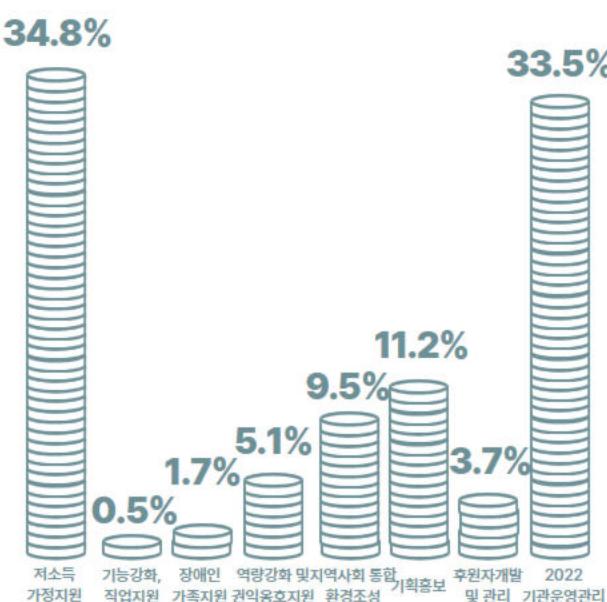
309,765,936원



일반(비지정) 후원금	120,654,874원
지정후원금	26,966,892원
공동모금회지정후원금	32,320,605원
2022 이월후원금	129,823,565원

지출

198,137,539원



저소득가정지원	68,998,270원
기능강화.직업지원	1,086,480원
장애인가족지원	3,296,510원
역량강화 및 권리옹호지원	10,090,590원
지역사회 통합환경조성	18,774,017원
기획홍보(조사연구, 직원연구 포함)	22,166,812원
후원자개발 및 관리	7,381,180원
2022 기관운영관리	66,343,680원

* 이 외에 저소득가정지원, 역량강화 및 권리옹호 등 지정. 비지정 사업을 위해 111,628,397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부된 후원물품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저소득가정의 지원으로 소중히 사용되었습니다.

복지관 후원물품

수입

7,909개

○ 참여후원자 53명(곳)
○ 후원 횟수 188회



전자제품
18개



생필품

1,848개



잡화
766개



식품

3,766개



의류

1,248개



기타
263개

나눔

6,993개



재가장애인 및
이용자 전달

3,300개



행사사용

2,765개



기관사용

928개

- 식당지원 200개
- 베이킹 프로그램 및 베이커리 지원 120개
- 프로그램 지원 74개
- 기타 534개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나눔,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별도시설 후원금

노틀담 아동주간보호시설

수입	
계	4,393,620원
이월금	1,742,207원
비지정후원	1,962,193원
지정후원	689,220원

지출	
계	4,393,620원
사업비	2,233,320원
운영비	996,670원
이월금	1,163,630원

노틀담 성인주간보호센터

수입	
계	5,322,351원
이월금	321,609원
비지정후원	4,400,742원
지정후원	600,000원

지출	
계	5,322,351원
사업비	3,612,170원
운영비	1,015,230원
이월금	694,951원

노틀담 베이커리

수입	
계	13,294,919원
이월금	2,441,556원
비지정후원	4,950,661원
지정후원	5,902,702원

지출	
계	13,294,919원
사업비	6,926,140원
운영비	3,172,860원
인건비	125,393원
차년도이월금	3,070,526원

행복후원 사랑실천

2023년 후원 및 자원봉사로 노틀담복지관과 함께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가는 삶 속에서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분들의 선한 의자와 실천은 장애인 당사자가 꿈꾸고 희망하는 '보통의 삶'을 만들어 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틀담복지관은 인간존중 정신과 사랑의 실천으로 당사자분들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을 후원합니다.

(기금후원자)

노틀담복지관

2023년 1월 ~ 2023년 12월

CMS 후원

강금실 강대영 강동진 강성호 강은영 강은형 강이화 강재도 고기영 고수주 고은이 고정호 고현옥 고혜진 곽용선 권경남 권유성
권은영 권재준 권현준 김경복 김경미 김금숙 김기옥 김노아 김만용 김명길 김미경 김미정 김민섭 김민영 김선민 김선옥
김수린 김수왕 김숙 김순식 김신임 김연자 김영미 김영수 김영임 김영희 김예진 김용득 김원석 김윤수 김은엽 김은희 김장희
김재경 김재유 김정민 김정수 김정현 김정훈 김준 김준호 김지애 김진하 김태균 김태림 김하나 김현정 김형동 김혜련 김효순
김희선 나대기 노국현 노용은 노지은 노천규 류정이 문국현 박경규 박난주 박봉희 박상선 박선영 박선정 박수영 박순영 박신후
박영규 박영석 박영순 박영하 박옥례 박은주 박재홍 박종철 박주연 박준혁 박지만 박지숙 박지환 박태순 박한섭 박해림 박현선
박현주 박홍석 배상순 배진숙 백상명 서민재 서은숙 서지현 선송규 성정임 소석현 손연경 송기만 송덕영 송양우 송지운 신명숙
신수정 신화숙 안동찬 안수형 안종덕 안희정 엄명범 엄윤희 예유경 오관진 오금례 오미숙 오영옥 오유정 오주연 온승훈 우성원
원가을 유동준 유순자 유지수 유진숙 유혜란 유헤진 윤경희 윤덕진 윤선애 윤영섭 윤은경 윤재술 윤향미 윤현섭 이경 이경현
이광재 이광정 이다원 이명수 이명옥 이미란 이미심 이미영 이민영 이범우 이병곤 이보영 이상규 이승찬 이연숙 이예은 이용갑
이은기 이은미 이은숙 이은아 이재린 이정옥 이정주 이정환 이종민 이준 이지웅 이창범 이창진 이충희 이태호 이하늘 이향자
이형찬 이희상 임금옥 임다현 임재희 임태희 장광순 장동현 장선미 장선희 장순화 장슬아 장유순 장은주 장은희 장재규 전병환
전상학 전영구 전용준 전유정 전윤서 전지연 전진영 정고은 정기영 정동욱 정성훈 정영규 정영미 정영철 정은아 정은영 정은영
정인순 정재호 정창욱 정혜경 조미경 조미경1 조미숙 조민아 조세형 조영욱 조정미 조진원 조치형 주지현 진범신 진장현 차성숙
차승호 천선자 천소연 천주성 천현숙 최길수 최남연 최명운 최명주 최미용 최승학 최옥선 최옥희 최인협 최재형 최정인 최종국
최지선 최창석 최추분 최춘옥 최한락 최현옥 최혜광 하광녀 한가람 한성희 한순영 한춘자 함석영 허두행 허성제 허재호 홍상표
홍성호 홍용호 홍정자 홍지환 홍택기 황교성

(주)철은인터내셔날 (주)케이티스틸 가르멜수도회 강효준(쌍둥이방앗간) 김수영(키즈프라임치과) 딸기어린이집 로이텍
명석자동차공업사 명품축산도매센타 장수두부 정성할인마트 제이엔씨동물병원 조상숙(반석이불) 한승호(예인의료기)

자동이체 및 방문 후원

강석호 고기종 권용식 권인경 김동완 김동율 김명진 김미향 김민지 김민희 김병국 김병호 김상현 김상현1 김선옥 김선옥1 김성숙
김영준 김용노 김윤호 김재동 김재형 김정옥 김정훈 김종인 김준규 김준영 김준희 김지춘 김철호 김충무 김태우 김현태 김효숙
나중원 남은혜 남정인 노승환 노창규 문정인 문현수 민경왕 박상진 박정수 박주옥 박태순 박희정 박희찬 배규남 배봉광 배정호
서영준 서정란 서지현 서창호 서효주 설미영 성민수 손영은 손용석 송명훈 송행숙 신창욱 심상혁 심재섭 안정욱 안현지 양웅필
양정진 양찬욱 양현욱 어명희 오경호 오세원 유송민 윤백일 윤성룡 윤장유 이경옥 이계신 이광근 이광수 이기명 이난영 이문영
이미옥 이상달 이상호 이순배 이승우 이승현 이영진 이은정 이지윤 이진선 이진우 인선홍 임미영 장민경 장선희 장성호 장승형
장용재 장정윤 장혜진 전상길 전상환 전재욱 정명섭 정 순 정진영 조병준 조진원 지철호 천설희 최종욱 최창호 최한락 최 훈
하병진 하진이 한가람 한영순 허두행 허승형 허제강 홍성민 황숙영 황욱진 황찬영

(주)마이크로텍 (주)아모레퍼시픽 (주)잘생겼다 (주)제이케이글로벌 62모임 국민은행계양지점 기업은행계산역지점
김종우(에세이마스터) 노틀담구아동발달지원센터직원일동 노틀담구청소년팀직원일동 대림조경 도진기업 서은엔지니어링
엄마한입아가한입 인천사회복지사협회 인천교통공사승무사업소 인천사회복지협의회 정성할인마트 주식회사에드텍엔지
지엠한마음재단코리아 케이엠텍 코 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지엠빈첸시오회 한국지엠사랑나눔봉사팀 한림플라워(이미옥)

물품후원

(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 (주)와이디아이 (주)용운 (주)제이케이글로벌 BHC경인교대점 DK스크린골프(서정란)
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계양구청노인장애인복지과 계양구청복지정책과 계양우체국 고려원약국 국민연금공단 국민은행계양지점
기아자동차(주) 김근석 김보라 김준석 내일상사(이희경) 대한제분(주)인천지점 미추홀장애인복지관 미훈모협회 인트리 박옥주
박주아 백암장수순대 백하은 산제로협동조합 삼기당한의원 서송병원 서운동성당 신한은행계양구청지점 엔산마운트 영원무역
왈순아지매 읍천리382인천계양점 이기명 이마트계양점 인천계양로타리를 인천장애인복지관협회 인천테크노파크 정성할인마트
제인스토어 조경애 좋은세상만들기 주택관리공단(주) 지철호 참좋은두레생협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인천지역본부 피자헛부평본점
하나기업주식회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전력공사 한림병원 한울타리나눔여성회

모금함 후원

경기마트 김선하의닭갈비 룩셈부르크 마산아구해물탕 선한의원 슬기서점 신세계약국 오피스타운 옥천관 온누리건강백화점약국
왕가숯불갈비 원주추어탕 원활머니보쌈 유니크카페 이동원(BC800) 이바돔감자탕계양구청 즉석떡볶이 코코호도작전점
파리바게뜨계양은행점 해모로마트 홍도신경외과 훈장골

노틀담 주간보호시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강문수 강봉구 김명자 김민영 김정현 김혜원 김현태 전권식 서정규 엄영재 임민숙 장원영 전예숙 정혜령 현명주 황철희

노틀담 성인주간보호센터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주)청이엔지 김경숙 김경진 김미정 김연숙 문지성 박성현 박소영 박소현 박영근 서성희 서현희 안종일 용민우 원인숙 유현재
윤소정 이근이 이병도 이하늘 이향재 이현주 주인목 차희수 최종원 한하늘 홍용숙

노틀담 베이커리

2023년 1월 ~ 2023년 12월

(주)성지디비 강미정 김기수 김민지 김예진 김필호 맹훈호 박미애 박정근 박주연 송정현 양태빈 예유경 유경자 유인철 윤기등
윤은경 이돈하 이병찬 이승찬 이정민 이종수 이태규 임희선 정영규 조민아 조학래 주정연 한수연 허재영 황정현

사랑을 실천합니다.

(자원봉사자)

노틀담복지관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강금자 강보현 강현지 강 훈 고나현 공분삼 곽정희 곽지은 권병욱 권선택 권우주 권정숙 권현정 김경순 김경식 김경제 김경화
 김계엽 김규은 김근식 김금자 김기수 김기순 김기출 김대정 김덕중 김동수 김미정 김백희 김범산 김보라 김상래 김서윤 김선열
 김선영 김선희 김성동 김성범 김성수 김성중 김세영 김소양 김수진 김순례 김순자 김연화 김영남 김영석 김영수 김영일 김영임
 김용균 김용수 김용애 김용준 김용희 김유리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나 김은미 김은자 김을순 김의엽 김재윤 김재혁 김정희
 김종만 김종봉 김종순 김종탁 김주순 김주아 김주현 김 준 김준영 김준태 김진수 김진숙 김진용 김진태 김찬율 김춘화 김태숙
 김태연 김태현 김현주 김효자 김희순 나용희 나인우 나현서 나형오 남시온 남장현 남재우 노선애 노창규 류영자 류지오 류춘호
 문선자 문현수 민경진 민현숙 박규리 박금숙 박명숙 박명실 박미덕 박미정 박민준 박병보 박병우 박성종 박세원 박소현 박숙희
 박승숙 박연희 박영숙 박영임 박영훈 박우열 박이자 박정선 박정자 박종민 박지훈 박형근 박희정 방경선 방극현 방연자 방용일
 방은아 배상순 배윤경 배창희 백경훈 백수아 백승아 백승우 백희정 변재경 변희정 서명원 서선희 서영월 서용세 서재원 서정란
 소훈섭 손석호 손수현 송경희 송명훈 송상열 송영석 송용철 송해영 송행숙 신선경 신진옥 신창욱 신필녀 신현근 신현숙 신현순
 심상혁 심영숙 심예원 심원보 안동훈 안상현 안재현 안정욱 양덕호 양미진 양승자 양은이 양은주 양지연 양진규 엄호섭 오경호
 오다경 오영욱 오정일 오진학 육윤수 원연숙 원영미 원영희 유대식 유수기 유재형 유정순 유종석 유 준 윤다미 윤미림 윤옥자
 은광덕 이경석 이광진 이광현 이근주 이금옥 이기형 이남우 이남주 이다희 이도훈 이동규 이동표 이명경 이명애 이명주 이상미
 이상호 이성남 이성우 이성재 이세호 이송희 이순제 이슬기 이승우 이승진 이승훈 이시현 이영석 이영화 이예지 이옥임 이용섭
 이용임 이우희 이원국 이원상 이원호 이윤선 이를자 이재경 이정민 이정애 이정현 이제순 이종건 이종국 이종수 이자혜 이진규
 이진미 이채윤 이현식 이현숙 이현우 이현정 이형렬 이혜옥 이훈상 이희연 인준영 인화숙 임상호 임숙자 임순임 임영실 임주현
 임홍렬 장부희 장석규 장선희 장영준 장영진 장용재 전상길 전선미 전영희 전완조 전유진 전태옥 전하연 전혜린 정기용 정대웅
 정 순 정옥순 정원선 정은숙 정지영 정한주 정희영 조남찬 조동준 조선남 조선미 조성미 조순애 조안수 조영림 조영민 조영식
 조옥현 조은재 조항조 조현옥 조호연 주익환 지승선 지영란 차민호 채학운 천재윤 최규영 최민준 최병은 최 솔 최옥희 최용호
 최윤미 최인화 최재민 최창호 최한락 최현규 최혜원 최 훈 하희숙 한가람 한영순 한태인 현미영 홍상표 홍윤자 홍종금 홍진숙
 황승연 황인자 황해윤

노틀담 주간보호시설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김도숙 김혜겸 박점숙 서은영 송기순 신선자 오에스더 원혜실 이영자 이윤선 이종연 임유순 정수현 정은숙

노틀담 성인주간보호센터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김나림 오하령 정연지

노틀담 베이커리

2023년 1월 ~ 2023년 12월

김기열 김복순 백양희 서동호 신선자 유애경 이춘자 이혜옥 장선희